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집회 27,4-7

제2독서: 1코린 15,54-58

복음: 루카 6,39-45

가톨릭 성가 입당: 455

봉헌: 70

성체: 180

파견: 280

◆ 화답송



(후렴) 주 님, 당 신 을 찬 미 하 오 니 좋 기 도 하 습 니 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 알렐루야.
-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연젠가는 정말로 늙어 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 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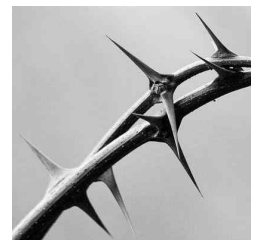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중략>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저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말에도 개기가 있다



(성경맛들이기 계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전함으로써(10번), 당시 (유대 사회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온) 율법서와 예언서를 잘 알고 있던 마태오 공동체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맞서 그리스도 신앙을 옹호하려 했다. 세례 때(3,17)와 변모 때(17,5)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느님을 부르는 예수의 호칭, 베드로(16,16)와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를 본 이들의 고백(17,54)을 통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자처하고(26,26 참조), 하느님 아버지의 전권을 물려받았다고 한다(11,27;28,18). 또한 마태오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써 임마누엘(1,23), 세상 종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28,20)이라 증언하고 있다.

바람직한 공동체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하였고,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일차적으로 하늘나라가 다가왔음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도록 하셨다(10,6).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사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5,11-12;10,17.23;13,21 등).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등 속에서 박해받는 이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북돋우며(10,17-25),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유대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마태오 공동체는 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종말까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곧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점차 쇠퇴되어 갔고 이에 따라 여러 갈등이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마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규범으로 삼아 나약한 신앙(13,22), 형제간의 불화, 자리다툼(23,8-12),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는 행위(24,10) 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써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하여(22,39;18,15-18.21-35) 서로에게 종으로서 봉사하고(20,27-28), 작은이들에게 열린(18,1-14) 참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새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th 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형인쇄 KS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광고주를 찾습니다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3월 3일	권순재 요한레오나르도	박종섭 요한	김보희 블라라	신혜정 소화데레사	박신희 리나	안선정 배옥희	신정목 황예슬	유기호 김영숙 민재인 이지연 유정옥 장혜윤 이정현 진문자
3월 10일	채봉석 그레고리	이항상 미카엘	김보현 엘리사벳	오윤서 글라라	정희연 첼리나	유기호 김창훈	홍찬 김하나	민완준 민덕미 김은희 백승훈 김영숙 박신희 홍민철 조리디야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울뜨레아**가 11시,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학부모회**가 11시, 교육관 3호실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3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20,27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17일 제외)	오후 1시30분~2시50분	

➢ 재의 수요일(3월 6일)

'재의 수요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전통은 6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이날 사용하는 재는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축복했던 나뭇가지를 태운 것입니다.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모든 신자들은 금식재(만18세부터 60세까지)와 금육재(만14세부터 죽을 때까지)를 의무로 지켜야 합니다. 금식재[禁食齋]란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점심식사는 평소대로 하되 저녁식사는 요기 정도만 하는 것을 말하고 금육재[禁肉齋]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재의 수요일과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

➢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이 기도는 초대 교회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 산까지 직접 걸어가며 기도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윗 성당

3/10	요셉회/성모회
3/17	구리아
3/24	청년회
3/31	학부모회/예수성가정회
4/7	울뜨레아
4/14	성령기도회/양업회

➢ 사순특강 및 판공성사

주제 : "그리스도의 몸"

강사: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일시: 3월 10일 10:30-16:00

강의 10:30-12:30(다미아노 홀)

점심 12:30-13:00(김밥, 다미아노 홀)

판공 13:30-16:00(아래성당 고해소)

고해사제: Fr. 김성인 미카엘, 박성호 다미아노, 박현웅 미카엘

※ 3월 9일(토), 청년미사 전후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고백시, 보다 많은 분들이 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짧게 하시고, 상담이나 긴 고백이 필요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부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3.1 알비노(양제의 주교) 3.3 가밀라 3.4 가시미로
- 3.7 빠르빠투아 3.9 프란치스코로마나 3.14 마틸다
- 3.17 패트릭, 안젤로 3.19 요셉 3.25 성모님 축일

➢ 2019년 Daylight saving Time



봄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서머타임이 곧 시작됩니다. 3월 10일인 다음 주일, 시계를 한 시간 당겨놓으시어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청년 피정

주제: 청년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조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카 3,10)

일시 : 3월 16일(토)-17일(일)

장소 : 뉴튼 수도원

참가비 : \$135, Venmo @MJKook

신청서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nxa1WVrEdHMxXc5dPDA6SkR-Sw0KXeSNXPJedbUNGqQxQ/viewform>

➢ 청년 성서모임 봉사자 모집

봄학기예 그룹봉사를 맡아주시실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연수를 다녀오신 모든 분들은 봉사자 자격이 있습니다.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3월 3일까지 아래 대표 봉사자 또는 부대표 봉사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 양소영 엘리사벳(617.455.2245)

부대표 : 김형미 소화 데레사(929.361.0502)

➢ 참 부모가 되는 길

부모 자신은 물론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일시 : 3월 24일(주일) 오후 1시30분 접수시작

시간 및 장소 오후 2시~8시, 가톨릭회관

대상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참가비 : 1인 \$20 / 신청마감 : 3월 10일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부부(646.808.7322)

➢ 2019년 찬양 · 치유 기도회

일시 : 3월24일 주일(미사 있음) 2PM-6PM

장소 : 뉴욕 예수 성심 성당

(10 Lawton Ave, Hartsdale, NY 10530)

준비물 : 없음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성경 맛들이기" - 마태오 복음서

신약성경 27권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이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공동체를 위한 설교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 규범으로서 교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책이다.

저자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130-200년경)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60-130년경)가 남긴 기록을 따라 첫 번째 복음서가 사도 마태오에 의해 쓰였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오늘날 사도 마태오가 스승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집필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태오 복음서는 Q문헌(예수의 어록)과 마르코 복음서를 참고하여 그리스어로 쓰인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의 직제자 마태오가 썼다면 그렇게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마태오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편의상 마태오라 부르고 있다.

독자

유대교의 여러 풍습이나 계율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풀이해주는 것으로 보아(마태 1.23 ; 27,33.46), 북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에 인접한 시리아 지방(그리스어 사용)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였다고 본다. 공동체가 점차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방인들에게로 열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바탕을 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고자 쓰였다.

저술연대

50-60년경에 쓰인 예수의 어록과 70년경에 완성된 마르코복음서를 참조하였다는 점, 교회의 발전을 고려하고 있는 점, 유대교와의 거리감이 생겨난 점, 100년경에 쓰인 디다케(12사도의 가르침)에 마태오 복음서가 인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대략 80-90년경에 쓰였다고 본다.

주된 내용

마태오 복음서는 모두 28장이다. 다섯 편의 설교(5-7장;8-9장;10장;13장;18장)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짜임새 있게 전해 주고 있다. 마태오 복음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예수란 누구인가'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두 주제에 맞추어 살펴볼 수 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고대하고 있었다. 마태오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다(1,1-17). 예수님은 당시 율법과 전통에 얽매어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버리는 대제관이나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질타하고,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을 하느님의 뜻으로 완성시킨 율법의 참해석자이다. 특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 미사 봉헌

- **연미사** 봉헌
 이영우, 이태묘 이상홍 스테파노
 강석중, 김두이도로테아 강호연 대건안드레아
 김해봉, 김말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박승창 라우렌시오 장제임시요한 가족
 원용한 요아킴, 김종목 리차드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 **생미사** 벨라
 김순한 루시아 박종옥 마리아
 이희순 글라라 황인자헬레나, 제의방
 강건대 마리아 울뜨레아 일동
 모든 꾸르실리스따 박종옥, 김기례, 김승애
 표해심 카타리나 이해라 미카엘라
 채송화 스텔라 김승연 안나
 여선구 요아킴, 김보희 클라라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050
감사헌금	\$ 320
합 계	\$ 1,370

교무금 :
강호영 오인희 정희자 신윤길 유정옥 부원희
이규완 제갈경희 배인철 손유경 경원유 고은경

감사헌금 :
부원희 이안나 오동훈 손유경

꽃봉헌 : \$20
노혜영